

# Global Market Daily



리테일파생팀/(1544-8400)

## Market Data

(2024. 03. 01 기준)

## News Brief

### 지수

| 품목         | 종가         | 등락률    |
|------------|------------|--------|
| 종합(KOSPI)  | 2,642.36   | -0.37% |
| 일본니케이225지수 | 39,910.82  | +1.90% |
| 중국상해종합지수   | 3,027.02   | +0.39% |
| 유로스톡스50    | 4,894.86   | +0.35% |
| 독일지수       | 17,735.07  | +0.32% |
| 프랑스지수      | 7,934.17   | +0.09% |
| 다우존스 산업지수  | 39,087.38  | +0.23% |
| S&P500     | 5,137.08   | +0.80% |
| 브라질지수      | 129,180.30 | +0.12% |
| 인도지수       | 73,745.35  | +1.72% |

### 통화

| 품목      | 종가       | 등락률    |
|---------|----------|--------|
| USD/KOR | 1,331.50 | -0.16% |
| EUR/USD | 1.0799   | -0.43% |
| USD/JPY | 150.68   | +0.79% |
| GBP/USD | 1.2600   | -0.53% |
| AUD/USD | 0.6492   | -0.48% |
| USD/CAD | 1.3599   | +0.35% |
| USD/CNY | 7.1987   | +0.14% |
| USD/HKD | 7.8289   | +0.02% |
| USD/CHF | 0.8891   | +1.17% |
| USD/BRL | 4.968    | -0.06% |

### 에너지/금속

| 품목             | 종가        | 등락률    |
|----------------|-----------|--------|
| WTI, 뉴욕 (선)    | 79.81     | +1.98% |
| Brent, 북해산 (선) | 83.37     | +1.78% |
| Natural Gas(선) | 1.836     | -1.29% |
| 금, 뉴욕 (선)      | 2,091.60  | +1.80% |
| 은, 뉴욕 (선)      | 23.35     | +2.01% |
| 구리, LME        | 8,389.00  | +0.58% |
| 아연, LME        | 2,382.00  | +1.71% |
| 니켈, LME        | 17,435.00 | +1.72% |
| 알루미늄, LME      | 1,820.00  | 0.00%  |
| 주석, LME        | 26,375.00 | +1.05% |

#### ■ 뉴욕증시, 댈 폭등에 상승...S&P500-나스닥 최고 마감

- 뉴욕증시는 댈의 주가가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을 촉진하며 폭등한 영향으로 상승 마감  
-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연준) 총재는 연준이 언제 금리인하를 시작할지 예측하기는 너무 이르다며 결정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  
- 아드리안 쿠글러 연준 이사는 노동시장이 크게 악화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계속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언급  
- CFRA의 샘 스토펬 전략가는 "인플레이션이 약간 끈질기긴 하지만 경제가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더 느리게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그러나 우리가 점차 더 높은 금리 주기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좋은 것이다"라고 발언

#### ■ 유럽증시, 기술주 강세-기업실적 호조에 상승...사상 최고치

- 유럽증시는 유럽중앙은행(ECB)과 영란은행(BOE)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이 기대되는 가운데 호조를 보인 기업 실적은 유럽 주식시장을 사상 최고치로 마감

(출처 : 블룸버그, WSJ)

#### ■ 달러화, 미 달러 약세...2월 PMI 둔화-유럽 근원 인플레이션 견조

- 달러화는 미국 2월 제조업구매관리자 지수(PMI)와 미시간대 소비자심리가 예상보다 둔화된데다 유로존 근원 인플레이션도 3%대를 유지하면서 달러화가 유로 대비 약세  
-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는 0.20% 내린 103.893%을 기록  
- 애플로매니지먼트의 토르스텐 슬록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은 올해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고 기준금리는 더 높은 상태로 더 오래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  
-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미국 통화정책포럼에서 양적긴축(QT)과 관련해 미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는 금융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더라도 한동안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 미 연준은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적으로 움직인다는 큰 확신을 얻을 때까지 금리 목표 범위를 줄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예상한다"고 발언  
- 버트 콜린 ING 이코노미스트는 "유로존의 실업률은 2019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라며 "고용시장이 여전히 강해 ECB가 금리를 즉시 인하해야 한다는 압력은 크지 않다"고 언급하며 "ECB가 3월 회의와 4월 회의를 건너뛰고 금리인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발언

(출처 :마켓워치)

#### ■ 국제유가, 중동 불안-OPEC+ 감산 연장 기대에 2% ↑

- 뉴욕유가는 중동 불안이 지속되고,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 산유국 협의체가 감산을 연장할 것이라는 기대에 올해 들어 최고치를 경신  
- ING의 애널리스트들은 가자지구에서의 새로운 긴장은 위험 심리를 가중한다고 지적  
- OPEC+ 산유국 협의체가 적어도 2분기까지 자발적 감산을 연장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짐  
-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OPEC+ 산유국 협의체가 감산을 적어도 2분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벨란데라 에너지 파트너스의 매니저 라지 매니징 디렉터는 마켓워치에 "OPEC+ 산유국이 감산을 연장하고, 연준이 금리인하 시점을 명확히 하면, 유가 80달러대가 눈앞에 보일 것"이라고 언급하며 "OPEC+는 미국의 셰일 생산 여지를 더 늘리게 되더라도 감산을 계속 연장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

#### ■ 금 가격, 부진한 지표에 두 달만 최고

- 금가격은 미국의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부진했던 영향으로 급등한것으로 풀이

(출처 : 블룸버그, WSJ)

## Economic Calendar D

| 시간 | 통화 | 경제지표 | 예상 | 이전 | 중요도 |
|----|----|------|----|----|-----|
|    |    |      |    |    |     |

(출처 : 연합인포)

## Economic Calendar D+1

| 시간    | 통화  | 경제지표            | 예상   | 이전   | 중요도 |
|-------|-----|-----------------|------|------|-----|
| 23:45 | USD | 합성 PMI          | 51.4 | 52.0 | 3   |
| 0:00  | USD | ISM 서비스업 PMI    | 53.3 | 53.4 | 3   |
| 0:00  | USD | ISM 서비스업 기업활동지수 |      | 55.8 | 3   |

(출처 : 연합인포)

## Technical Point

### 해외선물 (대표월물)

(2024. 03. 01 기준)

| 상품  | 종목               | 종가      | 전일대비   | 2차저항    | 1차저항    | 1차지지    | 2차지지    |
|-----|------------------|---------|--------|---------|---------|---------|---------|
| 지수  | Mini S&P 500     | 5138.75 | +0.69% | 5147.25 | 5125.50 | 5071.00 | 5038.25 |
|     | FTSE China A50   | 11920.0 | +0.40% | 12028.7 | 11950.3 | 11770.3 | 11668.7 |
|     | NIKKEI225 Dollar | 40195   | +2.26% | 39632   | 39468   | 39018   | 38732   |
| 통화  | Euro FX          | 1.08465 | +0.35% | 1.08853 | 1.08472 | 1.07867 | 1.07643 |
|     | British Pound    | 1.2655  | +0.33% | 1.2707  | 1.2660  | 1.2590  | 1.2567  |
|     | Japanese Yen     | 6677.0  | -0.13% | 6752.3  | 6719.2  | 6653.7  | 6621.3  |
| 금속  | Gold             | 2091.6  | +1.80% | 2073.4  | 2064.1  | 2040.7  | 2026.6  |
|     | Silver           | 23.345  | +2.01% | 23.295  | 23.090  | 22.590  | 22.295  |
|     | Copper           | 3.8585  | +0.30% | 3.8843  | 3.8657  | 3.8312  | 3.8153  |
| 에너지 | Crude Oil        | 79.81   | +1.98% | 79.83   | 79.05   | 77.71   | 77.15   |
|     | Brent Crude Oil  | 83.37   | +1.78% | 83.41   | 82.66   | 81.34   | 80.77   |
|     | Natural Gas      | 1.836   | -1.29% | 1.958   | 1.909   | 1.820   | 1.780   |

## FX Market

(2024. 03. 01 기준)

| Currency | 구분      | 종가     | 전일대비    | 2차저항    | 1차저항    | 1차지지    | 2차지지  |
|----------|---------|--------|---------|---------|---------|---------|-------|
|          | EUR/USD | 1.084  | +0.29%  | 1.088   | 1.084   | 1.078   | 1.076 |
| USD/JPY  | 150.150 | +0.11% | 151.399 | 150.692 | 149.952 | 149.245 |       |
| GBP/USD  | 1.26554 | +0.25% | 1.27082 | 1.26662 | 1.26395 | 1.25975 |       |
| USD/CAD  | 1.35600 | -0.15% | 1.36293 | 1.36048 | 1.35729 | 1.35484 |       |
| AUD/USD  | 0.65256 | +0.44% | 0.65490 | 0.65229 | 0.65049 | 0.64788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입니다. 당사 고객에 한해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 배포, 전송, 변형, 대여될 수 없습니다.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키움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해외파생상품(선물&옵션거래)은 자산가치 변동에 따라 원금초과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환율 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 잔고가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강제청산 될 수 있습니다.

-해외선물거래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FX마진거래는 위탁수수료가 없는 경우에도, 매매 시 호가 스프레드 등의 거래비용이 발생합니다.

-해외선물거래시 수수료(달러상품 계약당 \$7.5, 엔화상품 계약당 ¥600)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타 수수료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파생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해 중목 추천이나 투자 권유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